

중기부, 부정수급 칼 빼들었다...“최대 5배 환수”

페이백·이면계약 등 다수 적발... 지원사업 전면 개편 공급기업 관리·감독 강화 등 공정·신뢰체계 구축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 개편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 관련 5개월간의 고강도 집중 점검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이 사업의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수급 행위 중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

중기부가 의뢰한 주요 부정행위는 △가격 부풀리기 및 페이백 △임차료 가장한 구매(이면계약) △장비 가동 등 데이터의 허위 전송 등의 방식이다.

먼저 일부 공급기업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의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대신 수행하며 이러한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중기부 지원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

모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장비 임차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현장 점검 결과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기업이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중기부는 최근 지원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예산은 2020년 30억원에

서 올해 980억원까지 증가했다.

중기부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위반 업체의 부정수급 관련 사업과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특히 범죄 혐의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향후 검찰·경찰 수사에 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2025년 지원

기업 1530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당국과 조사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 강화 △설비투자 능력과 성장 의지가 있는 소공인 지원 △영상·인터뷰 기반 지원대상 선정 방식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 적정성 검증 강화 △사후관리 체계 강화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이라며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스타벅스 감사 전해요” 다양한 기프트 상품 선택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감사의 달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스타벅스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선물하기 좋은 푸드와 머그, 스테인리스 텀블러, 커피 세트 등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기프트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쿠키를 말차, 초코, 치즈 등 3가지 맛으로 구성해 전용 티 케이스에 담은 ‘스타벅스 쿠키 셀렉션’을 출시한다.

함께 출시되는 ‘쿠키 바스켓 2종’ (말차 잼, 초콜릿 잼) 역시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달려있어 부담없이 선물하기 좋다.

스타벅스의 인기 디저트인 돌체 피겨 초콜릿을 투명한 보틀에 담은 ‘돌체 피겨 초콜릿 보틀 세트’를 감사의 말 한정상품으로 선보인다.

이밖에도 찹쌀떡이 2종 (피넛초코, 카다이프)과 쿠키 티 세트 2종 (너티, 초코) 등 기존 패키지 푸드에도 “Thank You” 행태를 포함해 분위기를 더했다.

스타벅스는 굿즈부터 커피까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폭넓은 선물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토이 스토리’ 협업 굿즈 ‘피키 뱅크’ (저금통)도 새롭게 선보인다.

윤용성 기자 yj404@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선글라스 시즌 매장 운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을 맞이해 ‘선글라스 시즌 팝업 매장’을 7월 말까지 운영한다. 선글라스는 지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로 코디 가능한 패션 필수템으로 해당 매장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만나볼 수 있다.

금호타이어, 1분기 영업이익 1470억원 기록

10분기 연속 매출 1조 돌파...“올해 매출 5조1000억 순항”

금호타이어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1678억원, 영업이익 147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다.

1분기 매출은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차용(OE) 타이어 공급 확대와 고수익 제품을 포함한 교체용(RE) 타이어 판매의 동반 성장으로 1조1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 2023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분기 집계 결과,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비중은 45.1% 달성, 글로벌 OE 매출 기준 EV 타이어 공급 비중은 20.6%를 달성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실적 가이드선으로 매출액 5조1000억원 달성, 18인치 고인치 제품 판매 비중 47% 달성, EV 타이어 공급 비중 30%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미국 관세 적용, 중동 전쟁 등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글로벌 매출 확대 및 고수익 제품 중심의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K-방산 100조...국가 경제 견인 동력”

광주상의, 최기일 교수 초청 경제포럼 성료

광주상공회의소는 28일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지역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9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이 글로벌 국방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가운데 K-방산의 미래 비전과 지역 산업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방 기술의 민간 확산(Spin-off)과 민간 혁신 기술의 군 적용(Spin-on)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강연자로 나선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는 ‘AI 전쟁 시대, 첨단 국방기술이 산업을 바꾼다’를 주제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미래 전장의 기술 체계와 방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심도 있게 진단했다.

최기일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K-방산 100조원 시대’ 진입을 앞두고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라며 “국방 산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미래 국가 경제를 견인할 확실한 성장 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전망했다.

강연에서 최 교수는 과거 정부 중심의 폐쇄적이었던 방산 구조가 ‘민간 주도’의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되며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자체보다 민간의 혁신적인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국방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접어든 만큼, 광주가 구축 중인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국방 첨단 기술의 실증 기반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광주의 강점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역량을 국방 신산업과 결합해 ‘광주형 방산 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방 R&D 초기 단계부터 민·관·군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첨단 기술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이를 비즈니스와 연결하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광주경제포럼이 지역 경영인들에게 미래 산업 흐름을 제시하고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전략적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